

덤 인생, 더 값지게!

더 오래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지만, 히스기야는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존 비크만 선교사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존은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심장의 피가 역류해서 서서히 심장이 멎는 병이었습니다. 심장 수술이 꼭 필요했는데, 성공률은 50%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되었고 존은 어떻게 하면 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총 부족으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전 세계 성경번역 사역을 위해 코디네이터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덤’이 무엇인지 아나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더 많이 얻게 되는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스티브는 어떤 장난감 가게에 정말 사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러 가게 되었답니다. 장난감 가게 아저씨는 평소에 스티브를 눈여겨 보았어요. 그래서 스티브는 아주 예의가 바르고 인사도 잘하는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스티브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을 사러 온 것을 본 주인 아저씨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어요. ‘올지, 됐다. 예의바르고 인사성 밝은 스티브에게 오늘 선물을 주어야 겠구나.’ 스티브는 장난감을 골라 계산대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날씨가 참 좋지요?” “그래, 스티브. 날씨가 참 좋지요? 이 장난감을 사려구?” “네,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래? 갖고 싶었던 것을 가져서 행복하겠구나.” “네, 그래요. 엄마와 아빠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릴게요.” 주인 아저씨는 스티브의 말을 들으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티브야, 네가 평소에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 해서 오늘 아저씨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해, 자 이거도 받으렴.” 아저씨는 스티브가 산 장난감 박스 위에 또 다른 멋진 로보트 장난감을 하나 더 얹어 주셨어요. 스티브는 너무 뜻밖의 선물을 받아 함박 웃음을 지었답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은 큰 병에 걸렸어요. 너무 너무 아픈 병이어서 히스기야 임금님은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 임금님은 병에서 낫게 되고 더 오래 살게 되었답니다. 덤으로 생명이 연장된 것이지요. 참 기쁘고 즐거웠겠지요? 그런데, 사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값지게 사는가가 더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보면 히스기야 임금님은 덤으로 얻은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답니다.

테러리스트로 오해를 샀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숨 쉴 때 인공 밸브가 내는 짹짹거리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시한폭탄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예요. 존 비크만 선교사님은 핏줄이 좁아지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병이라는 (대동맥판막역류와 협착) 판정을 받았어요. 병이 깊어지면 피가 거꾸로 흐를 뿐 아니라

나중에는 심장이 멎어서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심장 수술을 받았어야 했는데, 실패와 성공 확률은 반반이었습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되었고, 선교사님은 생명이 연장되었지요. 그 때 선교사님은 어떡하면 자기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선교사님은 모든 총 지역에서 복음 전할 아이들을 불러 총 신약성경을 가르쳐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최근에 새롭게 발견되는 다른 총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생각을 기뻐하셨고,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답니다. SIL 이사회가 그를 전 세계 성경번역 사역자들을 위한 번역 코디네이터로 임명했던 것이예요.

한 이사가 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일에는 당신만큼 잘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총 부족 중 하나에 들어가 사역하며 성경번역을 완료했죠. 과테말라에서 행정사역 경험도 쌓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현지인 사역자들이 훨씬 더 빠르고 더 나은 번역을 하도록 돕는 워크 프로그램도 개발했잖습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현지인 성경번역사역자들이 당신이 미틀라에서 멕시코 성경번역사역자들을 도운 것과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존과 엘레인은 이미 이사회가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결정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사회 역시 존 선교사님이 살아 있는 동안 가장 값진 일에 자신의 힘을 쏟을 것을 알고 그를 임명한 것이었답니다. “만일 성경번역 사역자들이 좀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미전도종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잘 사용하시겠다면,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존 선교사님이 대답했어요. 존 선교사님은 남아있는 삶 동안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가장 값지고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래요.



성경을 함께 읽어요

열왕기하 11:9-21
열왕기하 (14:25-29)/ 17:5-18
열왕기하 20:12-19

생각해요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되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 싶나요?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절 당 1센트 혹은 장 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 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Copyright © 2012 by Wycliffe Canada. All rights reserved. 모든 저작권은 위클리프 캐나다에 있으며, 동의/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 및 온라인 게시를 금합니다.